

중세국어 반말체의 위상

양영희*

1. 머리말

본고는 소위 중세국어 '반말' 체로 일컬어지는 '-니' 체를 비공손형 비격식체로 간주하고자 한다¹⁾.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 그동안 이 체는 '-느다' 체보다는 높은 등급으로 간주해 왔지만 본고는 '-느다' 체와 같은 등급인 '비공손형'으로 인식하려는 것이다. 둘째, 중세국어 공손법에서 지금까지는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구분하지 않았지만, 본고는 중세국어에도 이들의 차이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니' 체를 비격식체로 간주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장에서는 '-이'를 [공손] 표지로 정의하

*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 1) 본고의 주된 대상인 '-니' 체는 지금까지 반말로 일컬어져 왔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니' 체로 명명하기로 한다. 그것은 다른 공손형의 명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고, 또 '-니'라는 형태를 밝혀야 본고의 주장을 밝히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고는 기존의 '호쇼서' 체를 '-느이다' 체로, '호야씨' 체를 '-녕다' 체로 '하라' 체는 '-느다' 체로 명명하기로 한다. 이는 서정목(1983), 한동완(1988), 임홍빈(1986), 김영옥(1997) 등의 의견을 참조한 까닭이다. 그들은 공손법 등급의 대표형을 상정함에 있어, '호쇼서'와 같은 명령형 보다는 평서형을 대표형으로 설정함이 무난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세 국어의 공손 표지는 '-이'이므로 이 형태소가 외현된 형을 대표형으로 삼아야 타당하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필자 역시 이들의 의견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여, '-니' 체에는 공손 표지가 없음을 밝히고, 그 다음 이 '-니' 체가 '-는다' 체와 혼용되는 예를 보여서, 결국 '-니'체와 '-는다' 체는 같은 대상에게 동일한 정도의 공손을 표지하는 말씨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니' 체가 출현하는 상황을 살펴, 이 형이 비격식체일 가능성을 개선해 보이고자 한다.

2. 비공손형 비격식체로서의 '-니'

중세국어 공손법은 '-느이다', '-녕다', '-니', '-는다'를 활용함으로써 실현된다. 그런데 '-니' 체에 대한 견해는 동일하지 않은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입장이 있다. '-니' 체를 하나의 독립된 등급으로 파악하는 입장과 '-녕다' 체와 동일한 등급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그것이다. 전자는 고영근(1997)이 대표적이고, 후자는 안병희(1965/ 1992)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후자의 입장이 '-니' 체 그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고영근(1997) 등이 '-니' 체의 공손 정도를 '-느이다' 체와 '-는다' 체 중간으로 설정함에 비하여, 이들은 이 형의 공손 정도를 '-녕다' 체와 같이 볼 뿐이었다. 따라서 공손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견해는, '-느이다' 체, '-녕다' 체, '-니' 체까지를 [+공손]의 말씨로, '-는다' 체만을 [-공손]의 말씨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리된다.

그러나 본고는 '-니' 체를 '비공손형 비격식체'로 규정하기로 하였다. 때문에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먼저 '-니' 체가 [-공손]의 말씨임을 규명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니' 체가 '-는다' 체에 해당하는 비격식체임을 밝혀야 할 것이다.

2.1 비공손형

여기서는 '-니' 체를 '비공손형'으로 판정한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

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이'를 '존대'가 아닌 '공손'의 표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니' 체에는 [공손]의 표지가 없음을 밝혀야 한다. 셋째, '-니' 체를 '공손형'으로 규정했던 기존 입장을 점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형이 지금까지 '비공식형'으로 인정해 왔던 '-는다'와 대등한 상황에서 사용됨을 보여야 한다.

우선, 제시한 첫 번째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하자. '-이'는 '존대' 표지인가, '공손' 표지인가? 이는 '-이'를 화자 편에서 이해할 것인가, 청자 편에서 이해할 것인가라는 물음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 화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공손' 표지가 되고, 청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존대' 표지가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다음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1. 가) (문수가 석가에게) “世尊하 내 神力으로 즘은 劫에 헤아려도 못 알리 로소이다”(월석 21, 14ㄱ)
- 나) (아난이 구탈보살에게) “너 藥師琉璃光如來 恭敬 供養호소보물 엇데 하며 續命幡과 燈과를 엇데 밧고리잇고”(월석 9, 52ㄱ-ㄴ)
- 다) (善宿 비구가 석가에게) “世尊하 엇던 전츠로 나롤 어리다 호샤 釋子 | 로라 호뎨 못 호리라 호시느니잇고”(월석 9, 35중ㄴ-35하ㄱ)

위의 화자는 청자보다 하위자이다. 즉 가)와 나)의 화자인 '문수'와 '아난'은 청자인 '석가'와 '보살'을 상위자로 섬기는 처지이다. 그런데 밑줄친 부분을 보면, 화자의 말에 '-이'가 실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화자가 자신보다 상위자를 상대할 경우에 '-이'를 사용할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위와 반대 상황을 살펴보자.

2. 가) (文殊가 善男子에게) “내 헤여 호니 이제 世尊이 큰 法을 니르시며 ... 큰 法義를 퍼려 호시는다”(석상 13, 26ㄱ-ㄴ)
- 나) (아난이 가섭에게) “들아지라”(석상 24, 3ㄱ)
- 다) (선수가 구라제에게) “... 네 모로매 밥 조리 머거 더 (부처의) 말쌈미 울티 아니케 호라”(월석 9, 35하ㄴ-36상ㄱ)

위의 화자는 앞서 살핀 예문 1과 동일하지만 청자보다 하위자가 아니다. 예컨대 가)의 화자인 '문수'는 청자인 '선남자'보다 상위자이며, 나)의 화자인 '아난'은 청자인 '가섭'과 '석가의 제자'라는 대등한 처지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가 출현하지 않았다. 이점은 예문 1과 좋은 대조를 보이면서, '-이'를 '화자가 자신보다 상위자를 상대할 때 사용하는 표지'로 추측했던 필자의 생각이 정당했음을 말해준다.

이 점에 주목하면, '-이'를 '청자 존대' 표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하위자인 화자가 상위자인 청자를 존대하기 위해 사용한 표지로 생각할 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단정짓기 전에, 여기서 '-이'로 연결된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가 누구이냐를 생각해야 한다. 이승녕(1964)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국어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중시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술어에 '-이'가 표지된 예문 1의 주어는 화자이다. 이를 감안하면, 이곳의 '-이' 역시 화자 편에서 이해해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는 상위자인 청자를 상대로 하는 화자가 자신을 '공손'하게 표현하는 표지이다. 이런 맥락에 서면, '-이'는 '공손'의 표지이다.

우리가 입증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니' 체에는 공손의 표지가 없으므로 이를 공손형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서정목(1990, 566)의 다음과 같은 의견이 참조된다.

3. “ … 즉 ‘청자를 대우한다’는 문법적 의미는 하나의 형태소에 의하여 표시되는 것으로 그리고 청자를 대우하지 않을 때에는 그 형태소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기술되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어 통사 구조의 일반적인 질서는 어떠한 문법적 의미든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태소가 있고, 그 형태소의 문장 내 출현은 그러한 의미를 문장에 포함시키며, 그 형태소의 결여는 그러한 의미가 그 문장 속에는 들어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자는 어떤 경우이든 청자를 대우할 때에는 청자 대우 형태소를 문장 속에 선택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자를 대우하지 않을 때에는 그 형태소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위에서 확인된 그의 입장은 는 화자가 청자를 공손하게 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장 내의 ‘-이’ 출현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그의 이런 입장에 동의한다. 즉 어떤 형이 공손형인가 아닌가는 공손 표지 ‘-이’의 출현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손형에는 반드시 ‘-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공손형으로 보아온 ‘-니’ 체에는 공손 표지 ‘-이’가 없다³⁾. 이런 맥락에 근거한다면, ‘-니’ 체를 ‘공손’의 태도로 간주했던 기존의 시각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니’ 체에 [공손]의 자질을 부여하였던 것일까. 여기서 그간의 입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 형을 ‘반말’로 규정하고 하나의 독립된 등급으로 처리한 이는 고영근(1981, 9)이다. 그는 아래의 다)를 예로 제시하면서, 여기서 사용된 ‘쁘시리’와 같은 말씨를 “화자가 청자를 아주 낮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썩 높일 수도 없는 처지일 때 쓰이는” 형으로 보고, “‘호라체’와 ‘호야씨체’의 중간을 왕래하는 반말 정도의 가치를 띤 것”으로 규정한다. 그러면 그가 생각하는 ‘반말’은 어떤 말씨인가? 이런 생각 하에, 고영근(1997, 307)을 보면, 여기에서는 ‘-니’ 체를 현대 국어의 반말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그는 ‘-니’ 체를 현대국어의 반말과 동일하게 본다는 말인데, 현대국어의

-
- 2) 여기서 그는, 화자가 상위자인 청자를 대하는 태도를 ‘존대’로 본다. 하지만 본고는 그 태도를 ‘공손’으로 본다.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그와 필자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어떻게 그의 생각을 필자의 입장대로 해석하느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필자의 견해 차이는, ‘-이’를 청자 편에서 이해하느냐, 화자 편에서 이해하느냐의 시각 차이에서 비롯될 뿐이고 근본적인 생각은 다르지 않다. 즉 ‘-이’를 청자 편에서 보면, 화자가 청자를 ‘존대’하는 표지가 되고, 화자 편에서 보면 화자가 청자에게 스스로를 공손히 표현하는 표지가 된다. 따라서 그의 ‘청자 대우’라는 표현은, 결국 우리의 ‘화자 공손’이란 표현과 같을 수밖에 없다.
- 3) 물론 ‘-니’ 체를 ‘-이다’의 축약형이나 생략형으로 본다면,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본고는 이런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차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반말에 대한 그의 설명은 고영근(1974, 82)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반말”이란 상대를 높이기도 어렵고 낮추기도 어려울 때, 말끝을 분명히 맺지 않은 형식으로, 특별히 종결어미 뒤에 ‘요’가 통합할 가능성이 있는 말씨⁴⁾로 정의되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대국어의 반말에 해당하는 예를 생각해 보자.

4. 가) 어디 갔었어?

나) 응, 시골 집에 다녀왔어. 요즘 시골 경치 참 좋대.

가') 어디 갔었냐?

나') 응, 시골 집에 다녀왔다. 요즘 시골 경치 참 좋더라.

가'') 어디 갔었어요?

나'') 예, 시골 집에 다녀왔어요. 요즘 시골 경치 참 좋더라고요.

위 가), 나)의 밑줄친 부분이 반말에 해당한다. 이런 말씨를 반말로 처리한 이유는 가'), 나')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 종결어미 ‘-냐’를 확실하게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가''), 나'')처럼 ‘-요’를 통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이다. 다음은 그동안 반말로 인식되어 온 중세국어 자료이다.

5. 가) (迦葉이 婆羅門에게) “그대는 어드러셔 오시느니” (석상 23, 40ㄴ)

(바라문이 가섭에게) “부테 涅槃하시닐 내 스승불 짜호로서 오노라” (석상 23, 40ㄴ)

(가섭이 바라문에게) “이 고존 모습 곳교” (석상 23, 40ㄴ)

4) 고영근(1974, 82)는, 기존 연구자들의 ‘반말’에 대한 쓰임새를 고찰하여 “전기 문법가들의 견해는 … ‘토를 똑똑히 달지 아니하여 높고 낮추는 뜻을 드러내지 않고 어름어름 하는 말’이란 정의에 대체로 부합되는 것 같다. … 그러나 50년대 이후의 문법가들의 ‘요 통합가능형’에 대한 정의와 명칭에는 독특한 점이 있다.”라 결론하고, “… 전기의 요통합 가능형을 종전과 같이 반말이라 부르되 …”로 반말을 정의하고 있다. 위의 정황을 미루어 보면, 그의 정의는, 50년대 이전과 이후의 견해를 통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나) (利師跋 공주가 태자에게) “아는다 모른다 내 그디와 夫婦^ㄷ의요려
 호노라” (월석 22, 55ㄴ)
 (태자가 공주에게) “그디는 王^ㄱ 쓰리오 나는 빌머글 사르미어니 어디
 편 서르 恭敬^호시리” (월석 22, 55ㄴ-56ㄱ)
 (공주가 태자에게) “엇더넛가 그디 나를 미드시느니 몰 미드시느니”
 (월석 22, 57ㄱ)
- 다) (선혜가 구이에게) “사이지라” (월석 1, 10ㄱ)
 (구이가 선혜에게) “大闕에 보내스바 부텃기 받즈뵤 고지라 묻호리라”
 … “므스게 쁘시리” (월석 1, 10ㄱ-ㄴ)
 (선혜가 구이에게) “부텃기 받즈뵤리라” (월석 1, 10ㄴ)
 (구이가 선혜에게) “부텃기 받즈뵤 므슴 호려 호시느니” (월석 1, 10
 ㄴ)

우선, 이들이 반말이라면, 위의 예문 5 가)와 나)의 ‘오시느니’, ‘미드시
 니’ 뒤에 통합할 만한 표지를 무엇으로 보아야 할까? 물론 15세기에는
 ‘요’가 없었으므로, 현재로서는 공손 표지 ‘-이’의 통합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니’ 체는 허용(1995)처럼 ‘-잇가나 ‘-이다’가 생략
 된 형이란 말이 되고, 결국 ‘-니’와 ‘-느이다’의 공손 정도가 같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정당하지 않음은 위의 예문에서 드러난다.
 예컨대 가)의 ‘가섭’이 ‘바라문’에게 질문하는 양상은 두가지로, 밑줄친 부
 분의 ‘오시느니’와 강조된 부분의 ‘므슴 곳고’가 그것이다. 만약 여기의 ‘오
 시느니’가 ‘잇고’의 생략형이라면, 가섭은 강조된 부분에서도 ‘므슴 곳고’로
 묻어서는 안된다. 당연히 ‘므슴 곳이니잇고’로 묻어야 할 것이다. 평소 ‘-
 느다’ 체로 상대하는 사람에게는 ‘-느이다’ 체를 쓸 수 있지만, ‘-느이다’
 체로 상대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의도가 없는 한, 어떤 경우에도 ‘-느다’
 체를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시느니’를 ‘오시느니잇고’의 생략형으
 로 본다면, 가섭은 ‘-느이다’ 체를 사용하여 공손히 대해야 할 인물을 경유
 에 따라 ‘-느다’ 체를 사용하여 공손하게 대하지 않은 양으로 해석해야 한
 다. 그것도 같은 맥락 안에서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모순을 초래하지 않으려면, 고영근(1988), 안병희(1992)처럼 ‘-니’를 종결 어미로 보아야 옳다.

생각이 이에 미치면, ‘-니’ 체는 다른 공손형 ‘-느이다’, ‘-녕다’ 체와 달리 [공손]을 의미할 만한 표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그런 까닭에 이 체를 ‘칭자를 존대하기 위한’ ‘공손’의 태도로 보려면, ‘-니’ 자체에 [공손]의 의미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니’ 뒤에 공손 표지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⁵⁾. 먼저 후자의 관점이 무리임은 위에서 밝혀진 터이다. 그리고 만약 전자의 관점을 취하면, 중세국어 공손 표지에 ‘-니’를 첨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이에 미치면 ‘-니’ 체를 반말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기대면, ‘-니’ 체를 현대국어의 ‘반말’에 대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곧바로 ‘-니’ 체를 공손형으로 볼 수 없다는 말로 통한다.

이제, ‘-니’ 체가 활용된 상황을 검토할 차례이다. 위의 대화를 보면, 동일한 대상에게 ‘-니’와 ‘-녕다’ 체를 혼용함을 알 수 있다. 가)의 가섭은 바라문에게 “... 오시느니”와 “이 고즌 므슴 곳고”의 말씨를 아울러 사용한다.

5) 이런 입장은 허웅(1995), 배석범(1996), 황문환(1998)이 대표적이다. 먼저 배석범(1996, 87)은 산문과 운문의 자료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니’의 기능을 고찰해야 함을 전제로, 『용비어천가』와 같은 운문 자료에 나타난 ‘-니’를 “운율적 특성으로 문법 형태가 생략”된 형으로 보고 있다. 곧 그는 ‘-니’를 ‘-잇가’나 ‘-잇고’의 생략형으로 간주한다는 말이다.

배석범(1996)이 운문의 자료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니’를 ‘-잇가·-잇고’의 생략형으로 결론한데 비하여, 황문환(1998, 87)은 그 대상을 산문으로 확대하여, ‘-니’를 “입의의 형태가 생략된” 형으로 결론한다. 그는 ‘-니’ 뒤의 생략된 어미를 ‘-잇가’나 ‘-잇고’ 등으로 한정짓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런 태도는 15세기 문헌에 존재하는 ‘-로소이다/-러이다/-라스이다/’ 등을 염두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배석범이나 허웅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고 해야 한다.

어찌됐든 이들은 ‘-니’를 종결어미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되는데, 이런 입장을 취할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나)의 이사발 공주 역시 마찬가지로, 그녀는 앞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될 선우태자에게 “아는다 모르는다”와 “그되 나를 미드시니 못 미드시니”처럼 ‘-니’와 ‘-는다’ 체를 번갈아 사용한다. 필자는 이런 현상을 ‘-니’와 ‘-는다’의 공존 정도가 대등한 것으로 풀이한다. 그렇지 않고는 동일한 대상에게 그것도 동일한 상황에서 이 두 체를 혼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보다 확실한 검증을 위하여 다음 예문도 아울러 살필 필요가 있다.

6. 가) (미륵이 문수에게) “佛子 文殊야 모든 疑心을 決호고라 (석상 13, 25
ㄱ)

가) (미륵이 문수에게) “文殊師利여 … 天龍鬼神들과 사름과 사름 아닌 것
과 香華伎樂으로 상네 供養호습는 아이 다 覩는다 (석상 13, 24
ㄴ)

나) (구이가 선혜에게) “그똥 말다히 호리니 … 두 즐기롤 조쳐 맞디노니
부텨긔 받즈하 生生에 내 願을 일티 아니케 호고라” (월석 1, 13
ㄴ)

나) (구이가 선혜에게) “내 願을 아니 從호면 고졸 못 어드리라” (월석 1,
12ㄴ)

다) (혜능이 別駕에게) 또 흔 偈를 뒷노니 卮란든 別駕 | 위호야 스고라
(육조 상, 25ㄱ)

다) (혜능이 別駕에게) 無上菩提를 비호고져 홀단덴 初學을 가비아이 너
기디 말라 (육조 상, 25ㄱ)

우선 위 가)와 나)에서 ‘고라’라는 종결어미를 볼 수 있다. 이 ‘고라’는 지금까지 ‘-니’의 명령형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런데 위를 보면, 동일 대상에게 ‘고라’와 ‘-는다’가 함께 쓰임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미륵’은 ‘문수’에게 가)에서는 “文殊야 … 모든 疑心을 決호고라”로 명령하다가, 가)에서는 “天龍 鬼神들과 사람들이 … 世尊에게 항상 供養하는 양이 다 覩는다”로 말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나)에서도 나타난다. 여기의 ‘구이’는 ‘선혜’에게 나)에서는 “… 호고라”로 명령하다가 나)에서는 “ 못 어드리라”고 단정한다.

이는 '고라'의 의문형과 '하라'의 의문형이 같은 인물을 상대로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고라'의 의문형인 '-니'와 '-느다'는 혼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니' 역시 비공손형이란 결론에 도달한다.

이상, 앞서 제시한 네 측면에서 '-니' 체가 공손형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니' 체에는 공손 표지 '-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 점은 '-느다' 체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본고가 '-니' 체와 '-느다' 체를 대등한 비공손형으로 간주하기로 한 명분은 여기서 연유한다.

지금까지의 논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시되는 사항이 있다. 즉 '-니' 체에는 존대 표지 '-시'를 동반한 '-시니'와 같은 형식으로 출현하는데, '-시가 없는 '-느다' 체와 어떻게 대등한 등급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이다. 이 점에서 상기해야 할 사실이 있다. 앞서 필자가 '-이'를 존대 표지가 아닌 공손 표지로 정의하였던 점이다. 이는, '-시'를 존대 표지로 '-이'를 공손 표지로 이분하여, '시'로써 존대할 상황과 '이'로써 존대할 상황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기저로 한 발언이었다⁶⁾. 그런데 기존의 입장들은 위의 '-니' 체에서 인지되는 [존대]의 의미를 [공손]의 의미로 착각하여, '-니' 체를 '-느다' 체보다 높은 등급으로 파악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들은 청자를 존대하는 방식에는 '존대'와 '공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두 방식을 [존대]로 통합하여 생각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이'를 '존대'가 아닌 '공손'의 자질로 파악하여, 청자를 상대로 하는 말씨에 관한 문법 절차를 '공손법'으로 명명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공손'에는 이미 [존대]의 자질이 녹아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

6) 양영희(2000)에서는, 존대 대상을 직접 존대하는 방식과 화자 자신을 겸양하거나 공손한 태도를 취하여 존대하는 방식으로 분류하고, 전자의 방식을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를, 후자의 방식을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습'과 '이'를 사용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여기서, 이들의 사용 조건이나 상황을 살펴야 하겠지만, 이런 논의는 본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생각 하에 더 자세한 위의 논문으로 미루기로 한다.

에도 정작 본인들은 청자 존대 표지로는 '-이'만을 고수하였다. '-시'를 '주체 존대 표지'로 '-이'를 '청자 존대 표지'로만 규정했던 태도가 이를 입증해 준다. 이런 입장이라면 '-니' 체에 나타난 '-시'를 청자 존대 표지로 해석해야 할 터인데도, 여기의 '-시'는 '청자와 주체가 동일할 경우에 주체를 존대하기 위해 실현된 표지'로 단정되었던 것이다⁷⁾. 그러면서도 위의 화자가 상대하는 대상이 청자라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어, 종결어미 '-니'를 '-잇가나 -잇고'의 생략형으로 설명하려 한다든지, 공손 표지 '-이'의 생략형으로 설명하려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짐작된다⁸⁾.

이러한 필자의 시각에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법하다. 즉 필자는 앞서 '-니'를 '-공손'의 태도로 보았는데, [-공손]이 어떻게 [+존대]로 해석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청자에게 공손할 의미가 없는 화자가 어떻게 청자를 존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다. 여기서 필자가 [-공손]을 [-존대]로 해석하지 않고, [비공손]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비공손]의 태도는 안병희(1882/ 1992, 128)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다분히 중립적인 태도이다. 굳이 자질로 표시하자면 [±존대] 정도이다. 때문에 [+존대]의 태도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필자가 [-공손]을 [-존대] 즉, [낮춤]으로 보았다면, 지금까지 개진한

7) 이런 태도는 기존의 모든 연구자들의 견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 근거를 일일이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처럼 '-시'가 청자를 존대할 경우에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김영옥(1997), 서정목(1984) 등이 그들이다.

8) 이 형에 대한 견해 차를 좀더 상세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느이다'의 생략형으로 보는 입장, ② '-니, -리' 자체를 종결어미로 간주하는 입장, ③ '-니' 뒤에 공손의 의미를 지닌 '-이'가 생략되었을 것으로 보는 입장 등이 있다. ①은 허웅(1995), 이기갑(1978) 등이 대표적이고, ②는 안병희(1992), 고영근(1981)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③은 한동완(1988)·장윤희(1988), 김영옥(1997)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밝혀 둘 사항은, 필자 역시 '-시니'를 청자 존대형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 형을 '공손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주장이 문체될 법하지만, 필자가 [-공손]을 [비공손]의 태도로 간주한 이상 하등 문체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도리어 필자와 같은 생각을 받아들여야 '-시니'와 같은 형식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이 형식에 공손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무리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청자를 존대할 때 사용하는 말씨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

2.2 비격식체

전 항에서 우리는 '-니'를 '비공손형'으로 판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상의 생각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고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의문을 떨쳐 버리기 힘들다.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니' 체를 사용하는가? 본 항은 중세국어 공손법에 '격식체'와 '비격식체'의 자질을 고려함으로써 이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구하고자 한다. 현대국어 공손법에서는 이미 이들을 고려함이 예사인데, 현대국어가 중세국어의 연장이라면, 중세국어도 이와 같은 자질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청자와의 대화는 특정 장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장면은 화자의 말씨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공적인 자리나 친하지 않은 사람끼리 나누는 말씨와 사적인 자리나 친한 사람끼리 나누는 말씨에는 차이가 있다. 앞 상황에서의 말씨를 '격식체'로, 뒤 상황에서의 말씨를 '비격식체'로 명명함이 예사이다. 이 때, 비격식체는 장소원(1986, 197)의 지적처럼 덜 단정적이고 부드러운 말씨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니' 체와 대등한 정도의 공손형으로 간주했던 '-는다' 체는 직설적이고 객관적이며 단정적인 말씨로 간주되기 쉽다. 이해를 돕기 위해, '-는다'가

9) 그렇다면, 필자는 15세기 화계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기존에 어느 정도의 '존대성'을 인정한 '반말'을 앞에서는 2.3항에서는 '비공손형'으로 처리하였으면서, 여기서는 '존대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당연히 제기될 법한 의문점이지만, 본고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차후를 기약하기로 한다.

출현한 예문을 살펴보자.

7. 가) 受用은 바다 쁘다 혼 쁘디라 (월석 2, 53ㄴ 협주)

나) 王이 怒^하야 니르샤터 ... 夫人스 벼슬 아스시고 그 蓮花를 버리라 흐시
다 (석상, 11, 31)

다) 오직 出世스 무슨물 머저 塵을 조차 더러움 업스면 곧 일후미 丈夫¹라
男女를 論홀 띠 아니니라 (영가 상, 25ㄱ)

라) 般若波羅蜜多는 이 큰 神奇^하 呪이며 이 큰 불근 呪이며 이 우 업슨 呪
이며 이 ㄱ줄벼 곶오리 업슨 呪¹라 (심경 59ㄱ-60ㄱ)

위 예문은 대화가 오가는 내용이 아니라, 서술자가 개념이나 어떤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진술하는 서술자는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쓰이는 종결어미 ‘-는다’ 또한 객관적이고 단정적인 성격이 짙은 것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형식은 ‘비공손’의 ‘-는다와 같은 모습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래 예문이 참조된다.

8. 가) (현각이 대중에게) “님 주겨 몸 살오미 ㄱ장 싫도다” (영가 상, 23ㄱ)

나) (대중이 도사에게) “舍利弗이 이괴여다” (석상 6, 31ㄴ)

다) (석가가 사리불에게) “내 즉재 念을 호디 如來 나몬 佛慧 닐오물 爲혼
전츠니 이제 正히 그 時節이로다” (법화 1, 242ㄱ)

라) (미륵이 문수에게) “... 天人 鬼神들과 사름과 사름 아닌 것괘 香華伎
樂으로 상제 供養^하습는 야이 다 뵈는다” (석상 13, 24ㄴ)

그런 까닭에 비공손형의 ‘-는다’ 역시 직설적이고 객관적이며 단정적인 말씨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또 이같은 느낌 때문에, 격식을 요하는 자리에서는 ‘-는다’ 체를 사용하였으리라 생각한다. 장윤희(1998, 115-116)에서는 설명형에 쓰이는 ‘-다’는 ‘관념적·객관적·사전적’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이 ‘-다’에 상대 높임의 형태소가 통합하면 강한 통보성”을 띠게 된다고 하였는데, 참조할 만한 내용이다. ‘통보적’ 기능은 다분

히 격식적이고 공적인 성격이 짙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니’ 체는 어떠한가. 이를 위해 ‘-니’ 체가 사용된 예문에서 ‘-시-’를 제외하고서 상황을 재현해보자. 그래야 같은 태도인 ‘-느다’ 체와의 비교가 용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9. 가) “그되는 어드러셔 오니¹⁰⁾” : “그되는 어드러셔 온다”
 나) “그되 龍王사각시 아니니” : “그되 용왕사각시 아닌다”
 다) “부텃거 받즈바 므슴 호려 호니” : “부텃거 받즈바 므슴 호려 호느다”
 라) “엇더닛가 그되 나롤 미드니 몰 미드니” : “그되 나롤 민느다 몰 민느다”

필자만의 생각인지 모르나, 그리고 현재 언어 직관으로 중세국어를 분석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으나, 이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즉 ‘-니’ 체가 ‘-느다’ 체보다 덜 단정적이고 부드러우며 친근한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서 살핀 ‘-느다’ 체에서 보여지는 객관적이고 단정적인 설명의 말투인 ‘-다’가 실현되지 않은 까닭으로 생각되는데,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보면 ‘-니’ 체는 같은 등급으로 보이는 ‘-느다’ 체보다 훨씬 부드러운 말씨로 인지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니’ 체는 비격식체일 가능성이 짙다.

문제는, 위 인물들은 초면인데 격식을 갖추지 않고 상대함이 가능할 것인가인데, 처음 말을 꺼내는 편에서 친밀하고 허물없게 대할 요량이라면 충분히 비격식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니’ 체를 사용한 예문 5의 대화 장면을 감안하면, 그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즉 위의 상황은

10) ‘오니’나 ‘미드니’와 같은 형식이 문증되지 않은 까닭에, 본문과 같은 재구에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형의 ‘-니’를 종결어미로 처리한 태도라면, 어간 ‘오-’나 ‘민-’에 ‘니’가 개입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어간 ‘오-’와 ‘민-’에 의문형 어미가 결합된 ‘온다’와 ‘민느다’와 같은 형식이 존재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오니’, ‘미드니’와 같은 형식이 있을 법한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설교의 문답이 오가는 공적인 장면이 아닌, 길거리(가, 나, 다)라든지 가정집이라는 점이다. 더군다나 가)의 가섭과 바라문은 파차가 석가의 장례식에 가는 같은 불제자임을 아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나)의 이사발 공주와 선우 태자는 비슷한 연배로 결혼을 염두하고서 만나는 처지임을 고려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어차피 이들은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끼는 상태여서 굳이 격식을 갖춰야 할 때는 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다)의 '선우'와 '구이'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이들은 보광불의 설교를 듣기 위해 가는 과정에서 만났고, 서로가 보광불에게 현화하려 함을 알고 있는 것으로 상황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서로에게 친밀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더군다나 두 남녀는 내세에 부부가 될 인연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고려하면, '-니' 체를 비격식체로 간주하려는 본고의 입장이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 생각한다.

3. 맺음 말

본고는 소위 중세국어 '반말' 체로 일컬어지는 '-니' 체를 비공손형 비격식체로 간주하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2장에서는 '-이'를 [공손] 표지로 정의하여, '-니' 체에는 공손 표지가 없음을 밝혔다. 그런 다음 '-니' 체가 '-느다' 체와 혼용됨을 예증함으로써 '-니' 체와 '-느다' 체는 같은 대상에게 동일한 정도의 공손을 표지한다는 주장을 개진해 보였다. 아울러 기존의 입장을 점검하여, '-니' 체를 현대국어 '반말'에 해당하지 않음도 입증해 보였다. 그리하여 '-니' 체를 '비공손형'으로 판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다음, 중세국어의 공손법에도 [±격식]의 자질을 부여하여, '-니' 체를 비격식체로 판정하기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청자와의 대화는 특정

장면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장면은 화자의 말씨에 영향을 주기 마련이라는 생각에서 근거하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는다'와 '-니'가 사용된 상황을 비교하여, 전자는 '관념적·객관적·사전적' 기능을 지닌 종결어미 '다'의 영향으로 다분히 격식적이고 공적인 성격으로 인식됨에 비하여, 후자는 이 '-다가 생략됨으로써 덜 단정적이고 부드러우며 친근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여, '-니' 체를 비격식체로 판정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 고영근(1961), 「월인석보와 석보상절의 한 비교」, 『한글』 128. 고영근 (1995) 재수록.
고영근(1974), 「현대국어의 존비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0권 2호 (82). 고영근(1995) 재수록
고영근(1981), 『중세국어의 사상과 서법』, 탑출판사.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고영근(1997), 『표준 중세국어 문법론 (개정판)』, 집문당.
김영옥(1989), 「중세국어의 존비법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89.
김영옥(1997), 『문법형태의 연구방법』, 박이정.
김종운 편(1984), 『국어 경어법 연구』, 집문당.
김형규(1975), 「국어 경어법 연구」, 『동양학』 5.
남기심(1996), 「국어 존대법의 기능」, 『국어 문법의 탐구 II』, 태학사.
노대규(1996), 『한국어의 입말과 글말』, 국학자료원.
박양규(1994), 「존대와 겸양」,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사.
박재연(1998), 「현대국어 반말체 종결어미 연구」, 『국어연구』 152.
배석범(1996), 「용비어천가의 독특한 질서를 찾아서」, 『국어학』 27.
서울대학교 대학원 편(1990),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서정목(1983), 「명령법 어미와 공손법의 등급」, 『관악어문 연구』 8.
- 서정수(1989), 『존대법의 연구』, 한신문화사.
- 성기철(1979), 「15세기 국어의 화계 문제」, 『서울 산업대 논문집』 2.
- 성기철(1985), 「국어의 화계와 격식성」, 『언어』 제10권 제1호.
- 안병희·이광호(1992),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안병희(1965), 「15세기 국어 공손법의 한 연구」, 『국어국문학』 28.
- 안병희(1983), 「중세국어경어법의 한 두 문제」,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유동석(1996), 「보조용언구문의 높임법」, 『이기문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총』, 신구문화사.
- 이기갑(1978), 「우리말 상대높임 등급체계의 변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 이승녕(1964), 「경어법 연구」, 『진단학보』 25·26·27 합병호.
- 임홍빈(1986), 「청자대우 등급의 명명법에 대하여」, 『국어학 신연구』, 탑출판사.
- 장소원(1986), 「문법연구와 문어체」, 『한국학보』 43집.
- 장윤희(1998), 「중세국어 종결어미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한동완(1988), 「청자 경어법의 형태 원리」, 『말』 13.
- 허 옹(199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황문환(1998), 「‘하니·허리’ 류 종결형의 대우 성격에 대한 통시적 고찰」, 『국어학』 32.

〈초록〉

본고는 소위 중세국어 '반말' 체로 일컬어지는 '-니' 체를 비공손형 비격식체로 간주하였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를 [공손] 표지로 정의하여, '-니' 체에는 공손 표지가 없음을 밝혔다. 그런 다음 '-니' 체가 '-는다' 체와 혼용됨을 예증함으로써 '-니' 체와 '-는다' 체는 같은 대상에게 동일한 정도의 공손을 표지한다는 주장을 개진해 보였다. 그리하여 '-니' 체를 '비공손형'으로 판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다음, 중세국어의 공손법에도 [±격식]의 자질을 부여하여, '-니' 체를 비격식체로 판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 '-는다'와 '-니'가 사용된 상황을 비교하여, 전자는 '관념적·객관적·사전적' 기능을 지닌 종결어미 '다'의 영향으로 다분히 격식적이고 공적인 성격으로 인식됨에 비하여, 후자는 이 '다'가 생략됨으로써 덜 단정적이고 부드러우며 친근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여, '-니' 체를 비격식체로 간주하게 되었다.